

Ch 20.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만나 봐

■ **학습목표** '-아/어/여도'를 사용하여 가정이나 양보를 표현할 수 있다.

■ **학습내용** 문형 : -아/어/여도

새 어휘 : 맞선, 소개팅, 따라가다, (이)나, 바로, 매력, 상대, 파이팅!



대화

지나 삼촌,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엄마 그래, 오늘 삼촌이 맞선을 보기로 했거든.

지나 맞선? 그게 뭔데요?

삼촌 소개팅 같은 거야.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준대서 만나 보려고 해.

지나 와, 재미있겠다.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엄마 너는 집에서 숙제나 해. 그런데 삼촌이 너무 말이 없고 조용해서 걱정이다.

지나 걱정 마세요. 그게 바로 삼촌의 매력이잖아요.

엄마 상대가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만나 보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해 봐.

삼촌 알았어. 그런데 나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지나 삼촌, 잘 될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파이팅!

교수방법 TIP

☑ 학생 수준에 따라 듣기 횟수를 조절한다.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에 나오는 어휘를 제시할 수 있다.



내용 이해 질문

(1) 삼촌은 오늘 결혼을 합니다.

답: X (삼촌은 오늘 결혼식이 아니라 맞선을 보러 갑니다.)

(2) 엄마는 삼촌의 성격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답: O (엄마가 삼촌이 말이 없고 조용해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 교사가 내용 이해 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삼촌은 어떤 성격입니까?

2. 왜 엄마는 삼촌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만나보라고 했어요?



어휘

맞선

相亲

선을 보다

소개팅

别人代为安排的男女初次见面

미팅

따라가다

跟去

쫓아가다

-(이)나

或者

바로

才是, 就是

이게 바로, 그게 바로

매력

魅力

매력적이다, 매력이 있다

상대

对方

상대방

파이팅!

加油

아자!, 힘내요!



교수방법 TIP





문법 학습

~아/어/여도

1. '-아/어/여도'는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동사, 형용사, 있다/없다, '이다'와 '아니다' 어간에 두루 결합하며, '이다'와 '아니다' 어간과 결합하면 '-여/이어도' '아니어도'로 바뀌어 쓰인다.

예) 저는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아요.
 날씨가 추워도 학교에 꼭 올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그 일을 끝내야 해요.
천재라도 그 문제는 풀 수 없을 거야.

2. '아무리'와 함께 쓰여 가정한 내용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을 거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3. '-아/어/여도 되다/좋다/괜찮다/상관없다'의 구성으로 쓰이면 허락이나 허용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지금 집에 가도 돼요.
 내일 드려도 괜찮아요?
 볼펜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1. 확인 질문

- 아무리 바빠도 꼭 하는 일이 뭐예요?
- 외국어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 어려워도 꼭 해 보고 싶은 것이 뭐예요?
-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2. 대화 연습

- 1) 가: 이 책 어렵지?
 나: 응, 아무리 _____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다)
- 2) 가: 바빠서 아침은 못 먹고 가요.
 나: _____ 식사는 먹고 가야지. (바쁘다)
- 3) 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나: 하지만 바람이 _____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요. (불다)
- 4) 가: 엄마 생신에 뭘 드리면 좋을까요?
 나: 작은 _____ 하면 기뻐하실 거야. (선물)

교수방법 TIP



☑ 구어에서는 '이라도/라도'나 '아니라도'로 쓰임을 제시한다.

☑ 동사/형용사 카드를 활용하여 '-아/어/여도'의 형태로 학생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 학생들이 짝을 지어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다.



연습

1. 빈 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1. 날씨가 _____ 학교에 꼭 오세요.

- 1) 추워도 2) 추운지

답: 1) 추워도

2. 밥을 _____ 배가 고파요.

- 1) 먹으면서 2) 먹어도

답: 2) 먹어도

3. 아무리 _____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 1) 늦게 올까 봐 2) 늦게 와도

답: 2) 늦게 와도

2. 빈 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1. (지나) 숙제가 너무 많은데 내일 하면 안 돼요?

(엄마) _____ 오늘 할 일은 다 끝내야지.

- 1) 숙제가 많으면
2) 숙제가 많아도
3) 숙제가 하기 싫어서

답: 2) 숙제가 많아도

2. (지나) 내일 민이 오빠 생일 파티에 갈 거야?

(유리) 그럼, _____ 갈 거야.

- 1) 무슨 일이 있기에
2) 무슨 일이 있는데
3) 무슨 일이 있어도

답: 3) 무슨 일이 있어도

3. (엄마) 밥을 먹고 또 간식을 먹니?

(지호) 엄마, _____.

- 1)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2) 먹다가 배가 고파도 또 먹어요
3) 먹어도 배가 고플 뻔했어요

답: 1)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3. 다음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십시오.

1. 게임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_____ 공부를 안 하니?

2. 오늘 늦게 자도 _____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3. 너는 내일이 시험이어도 _____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해요.

교수방학 TIP



☑ 학생이 직접 대화문의 역할을 맡아 읽어보게 한다.



K-town Story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성격을 잘 알면 학교나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무슨 직업이 나에게 맞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성격에 맞는 직업의 종류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수줍어하는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히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적합합니다. 디자이너, 미용사, 사진작가 등이 어울립니다.

둘째, 감정 표현이 별로 없고 감정이 쉽게 변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냉정하다는 오해를 받기 쉬운 성격의 사람들은 판사, 경찰관, 요리사 등의 직업이 적합합니다.

셋째,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사교적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어울립니다. 이런 직업에는 외교관, 사업가, 교육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사람의 말을 잘 듣고 책임감이 강하고 차분하여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사람들에게는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의 직업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혹시 자신의 성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격을 조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내용 이해 질문

1. 대답해 보세요.

1. 성격이 조용한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습니까?
2.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직업이 잘 맞습니까?
3.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성격이 많을 것 같습니까?

2. 윗글의 내용과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십시오.

1. 윗글은 미래의 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O , X)
2.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쉽다. (O , X)
3. 사교적인 사람에게 선생님은 어울리는 직업이다. (O , X)

답: 1) X 2) X 3) O

교수방법 TIP



☑ 장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 보고, 그 일이 성격과 잘 맞을지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면서 글에 나오는 어휘를 제시한다.

☑ 새 어휘

유익하다, 종류, 나서다, 수줍어하다, 적합하다, 감정, 냉정하다, 적극적, 사교적, 외교관, 책임감, 공무원, 타고나다



과제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어/여도’를 사용하여 써 봅시다.

1. 과거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중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2. 실패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그러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 ‘-아/어/여도’를 사용해서 자신의 결심을 써 봅시다.

예시

지난 시험 때 일입니다.

저는 친구들과하고 노느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전 날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전 날에도 저는 공부를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무리 내일이 시험이라도 제가 꼭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봐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다 본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냐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와는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언제나 재미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와도 저는 꼭 공부를 하고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 보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잠을 잤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무리 다른 일이 하고 싶어도 시험 전에는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험을 꼭 잘 보겠습니다. 파이팅!

교수방법 TIP



- ☒ 단문 위주의 글이 되지 않도록 연결어미 사용을 권장한다.
- ☒ 의미 단락별로 문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보충 자료

1. (보기)와 같이 ‘-아/어/여도’를 사용해서 쓰세요.

보기

가: 다이어트 때문에 점심 안 먹은 거야?

나: 응,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을 거야.

1. 가: 또 졸려?

나: _____.

2. 가: 그거 또 먹어?

나: _____.

3. 가: 아직도 한국어를 잘 못하니?

나: _____.

4. 가: _____.

나: 그렇게 자꾸 먹으면 살찔 거야.

5. 가: _____.

나: 날씨가 추워도 소풍은 꼭 가야지.

6. 가: _____.

나: _____.

7. 가: _____.

나: _____.

교수방법 TIP



예시 답안

1. 어, 아무리 자도 또 졸려.
2. 응, 아무리 먹어도 정말 맛있어
3.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돼
4. 또 먹어도 맛이 있네.
5. 내일 매우 춥대. 소풍 갈 수 있나?
6. 가: 그 남자 너무 이상해.
나: 외모가 이상해도 좀 더 만나 봐.
7. 가: 요즘 돈이 너무 없어.
나: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